

2010년 3월 5일 기성과 섭리의 차이점에 대하여-김은진

기성을 다니는 친구를 만나고 난뒤 기성에 사랑이 없음을 보고

나의 심정, 나의 사랑아. 나의 말 듣고적을 지니라. 나는 이곳 섭리사에도 기성 가운데도 그리고 나를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도 나의 사랑으로 역사한다. 각자 지식 등으로 인해

섭리와 기성의 차이를 깨달았느냐?

그들은 종과 아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렇다. 그들에게는 신부의 사랑이 없다. 분명 그들에게도 나를 향한 사랑이 있단다. 그러나 그 사랑 중의 입장에서의 아들

내가 섭리사에 역사할 수 밖에 없는지를

그들은 진정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서 나를 대하는 구나.

내가 이세상을 사랑으로 만들었는데. 말씀에 ..

고백을 하나 온전히 그 깊은 속을 보면 물질, 이성, 구원받는 것을 사모하는 구나. 그래도 날 부인치 않고 부인치는 않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크구나.

누가 뚫고 올라왔는지 아느냐? 너희 선생이 인간의 몸으로 나 예수를 깜짝 놀라게 했노라. 진정 그의 모든 마음과 사랑은 나를 놀라게 할 만큼 크고

인간으로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니

너희는 나와 내 사랑하는 신부인 너희 선생과 나의 깊은 사랑을 모르지 않니? 내 심정, 내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자들이

오직 사랑이다.

창조목적의 핵심도 사랑이요. 천국은 사랑의 결정체란다. 어느것하나 사랑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뜻 깨져 생긴 곳이기때 그곤이 곤이라.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고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게 된단다. 그러니 너는 매일 점검하라. 나의 사랑에 점검하고 말씀에 빗대어 보고 양심에도 빗대어 보아라. 하루

매순간 매순간 자신을 성찰하라. 나의 심정을 받아 나의 삶을 살어나

오직 사랑임을 잊지말고 나를 아는 지식을 잘 세겨 놓을 지니라.

진정한 표적의 역사 일어난단다.